



# 경상북도 보도자료

2020. 4. 20(월)

TEL. 054-880-4322

제 목	담당부서	비 고
<b>① 경북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재도약 위한 범도민위원회 구성 추진</b> 26일까지 도민 누구나 홈페이지, SNS통해 위원회 명칭, 인재 추천 가능 코로나19 극복도민 사기진작 지역경제 회복 등 위한 도민 애치 결집 용광로 역할 정책개발 생활문화개선, 경제살리기, 미래재도약, 시민참여분과 등 100-200명 규모, 5월출범	정책기획관	
<b>② 코로나19 극복, 경북 사회적경제 특별판매전 성황</b> 3월, 1차 특별판매 2주간 477백만원 매출 달성 4월10일까지 2주간 모집에 75개 기업, 220여종 상품 신청 4월27일부터 경북 사회적경제 2차 특별 할인판매 개시	사회적경제과	
<b>③ 경북도,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잔 걸음!</b> 일본 수출규제,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철강산업 어려움 가중 관련 기반구축, 기업지원, R&D 예타 추진 등 전방위적 지원책 추진 속도	소재부품 산업과	
<b>④ 4월22일 '지구의 날' ... 10분간만 소등해 주세요!</b> 경북도, 지구의 날(4.22)을 맞아 공공건물 등 10분간(20:00-20:10) 소등 당부 기후변화 심각성 인식 및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확대 계기 마련	환경정책과	
<b>⑤ 경북도, 군위 군관리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등 4건 조건부기결</b> 17일 제3회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도시계획과	
<b>⑥ 경북도, 말(馬)산업 육성에 날개 달다!!</b> 경상북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공포 말(馬)산업 체계적 육성과 안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축산정책과	
<b>⑦ 경북도, 생활안전 지킴이... 민생경찰 서포터즈 위촉</b> 제3기 경상북도 민생경찰 서포터즈 선정 5대 분야 50개팀 100명 사명감과 책임감 강한 도민으로 구성	사회재난과	
<b>⑧ 조심 또 조심! 경북도 봄 영농철 농기계 안전사고 주의 당부</b> 작년 한 해 847명 농기계 사고로 다쳐, 4월~6월 36.7% 차지 70대 사망사고 가장 많아, 농촌 고령화로 조작 미숙, 부주의가 요인	소방본부	

 <b>경상북도</b>	<b>보도자료</b> <b>【20. 4. 20(월)】</b>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작성자	기획관	정성현		
			팀장	안성렬	주무관	금두연
		연락처	054-880-2115			

## 경북도, 코로나19 극복 등 지역 재도약 위한 범도민위원회 구성 추진

- 26일까지 도민 누구나 홈페이지, SNS 통해... 위원회 명칭, 인재 추천 가능 -
- 코로나19 극복+ 도민 사기진작, 지역경제 회복 등 위한 도민 에너지 결집 용광로 역할 -
- 정책개발 생활문화개선 경제살리기 미래재도약 시민참여분과 등 100-200명 규모 5월 출범 -

경상북도는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 극복과 경제 회복 등 지역의 새로운 재도약에 도민들의 의지와 실행력을 함께 모으기 위해 ‘범도민 추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지역 전반에 직·간접적인 피해가 크고, 특히, 도민들의 사기 저하와 부정적 이미지, 경제 침체 등 경제·사회적으로 부정적 여파가 확산됨에 따라, 도민들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고, 지역의 새로운 재도약을 위한 용광로 역할을 할 구심점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위원회 구성의 기본방향은 지역의 역량을 결집하고,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주도할 수 있도록 경제계와 민간단체, 시민대표, 학계, 언론, 청년, 농업인,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 참여하고, 위원장도 도지사과 민간 공동위원장을 함께 위촉할 계획이다.

또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지역 원로그룹들이 주축이 되는 자문단과 분야별 대표들이 참여하는 공동대표단도 함께 운영해, 위원회의 위상과 신뢰성을 높일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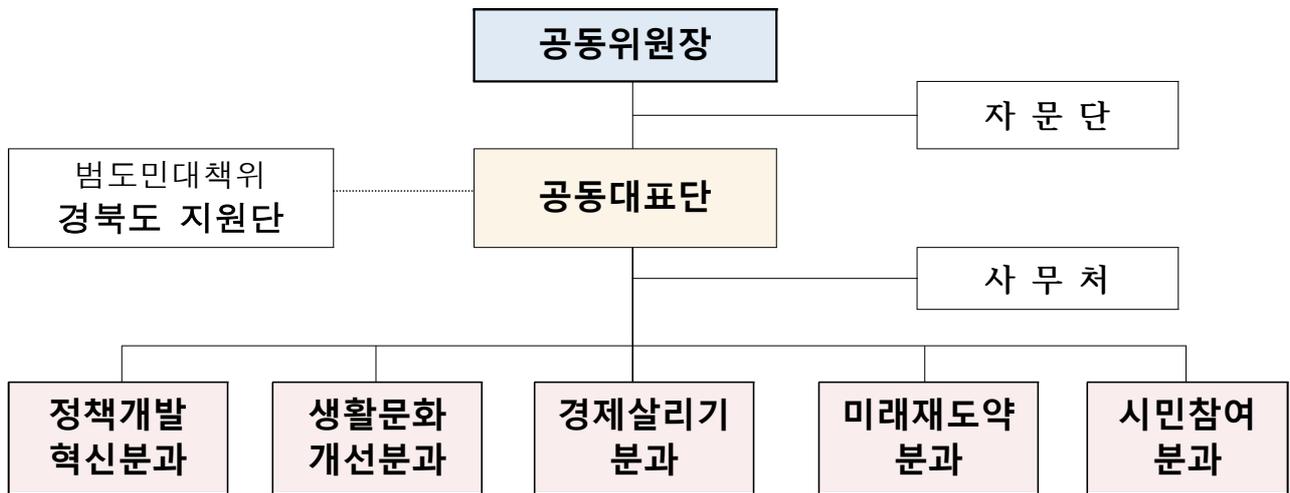
특히, 이 위원회는 기존에 행정에서 운영해오던 위원회와는 상당부분 차별성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행정에서 운영해 온 위원회의 경우, 정책에 대한 단순한 자문이나,

안전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던데 반해, 이 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정책 아이디어를 모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프로세스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단순한 행정의 도우미가 아니라 지역 발전의 주체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 참고 : “000 범도민위원회” 조직 구성(안)



위원회는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수렴하고,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단계적으로 전략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1단계에서는 도민의 심리 회복과 코로나19로 인한 대구경북 지역의 잘못된 이미지 개선, 피해 농가 및 소상공인 등의 지원에 포커스를 맞추고, 2단계에는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각종 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하며, 3단계에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신공항 이전,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지역 산업구조 개혁 등의 대도약 과제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경북도에서는 도 공식홈페이지 등을 통해 오는 4월 26일까지 위원회의 명칭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 받는다. 또한, 각 시군을 통해서도 인재를 추천받는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위원회의 명칭은 코로나19 위기 조기 극복과 지역의 재도약에 도민들의 모든 역량을 모으자는 의미를 포함한 것으로, 도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름이면 된다.

이철우 지사는 “이번에 출범하는 위원회는 그야말로 도민이 주체가 되는 특별 위원회다. 코로나19 극복과 지역의 재도약은 행정만의 힘으로 불가능한 만큼, 도민 모두의 힘과 에너지, 아이디어를 모아달라”고 당부하면서,

“이 위원회를 통해서 대구경북이 새로운 길을 찾고, 대한민국의 중심으로堂堂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b>경상북도</b>	<b>보도자료</b> <b>【20. 4. 20(월)】</b>	담당부서	일자리경제실 사회적경제과				
		작성 자	과 장	김 규 율			
			팀 장	차순애	주무관	김인걸	
		연 락 처	054-880-2613				

## 코로나19 극복, 경북 사회적경제 특별판매전 성황

- 3월, 1차 특별판매 2주간 477백만원 매출 달성 -
- 4월10일까지 2주간 모집에 75개 기업, 220여종 상품 신청 -
- 4월27일부터 경북 사회적경제 2차 특별 할인판매 개시 -

경상북도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 사회적경제기업의 정상운영을 돕기 위해 지난 3월에 이어 4월 27일부터 사회적경제 온·오프라인 2차 특별판매를 실시한다.

3월13일부터 2주간 진행된 1차 특별판매는 온라인 269백만원, 오프라인 208백만원 등 총 477백만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부금을 경북의 사회적경제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제품으로 구성된 ‘희망꾸러미(2종)\*’를 제작하여 취약계층이나 지원기관 종사자 등에게 1억 4천만원 상당을 전달했다.

\* 코로나19 구호키트(취약계층을 위한 생필품 15종), 코로나19 감사키트(종사자를 위한 비상식량 위주)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확대와 기관·단체의 사회공헌 활동을 동시에 지원한 성과를 토대로 경북도는 지난 3월, 코로나 대응 사회적경제기업 특별프로모션 사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3월30일부터 2주간 참여기업을 모집한 결과, 75개 사회적경제기업이 220여종의 상품을 신청했다.

도는 4월 24일까지 신청 상품에 대해 규격화, 일일 공급량, 공급가격 등을 최종 결정하여 온·오프라인 거래처에 상품을 등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판매전은 우체국쇼핑몰에 경북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브랜드관이 개설되고 최대 40%의 기획 할인행사가 이루어진다.

경북지방우정청 및 우편사업진흥원은 “함께해요! 힘내라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기획전을 통해 우체국쇼핑몰 고객을 대상으로 메시지 발송과 모바일앱 알림 등 적극적인 홍보를 지원한다.

온라인 쇼핑몰에 등록하지 못하는 기업은, 경상북도와 사회적경제 우선 구매 등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민간기업들과 연계한 오프라인 기획전을 통해 최대 40% 할인판매를 지원받는다.

온라인 매출목표가 조기에 달성되고, 농수산물가공식품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 1차 특별판매의 결과를 토대로, 경북도는 농수산물가공식품과 패키지 상품을 구성한 소비자 맞춤형 판매전략을 추진한다. 온라인 쇼핑몰과 대형유통사 거래처 확장도 함께 추진하여 1개월내 10억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호진 경상북도 일자리경제실장은 “전국의 많은 기관과 국민들이 경북 사회적경제에 큰 관심과 호응을 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면서 “경북 사회적경제기업의 우수한 제품을 더욱 많이 소개하고 판로를 개척하여, 이번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고 밝혔다.

 <b>경상북도</b>	<b>보도자료</b> <b>【20. 4. 20(월)】</b>	담당부서	과학산업국 소재부품산업과				
		작성자	과장	조현애			
			팀장	신명섭	주무관	권경진	
		연락처	054-880-2463				

## 경북도,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댐 걸음!

- 일본 수출규제,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철강산업 어려움 가중 -
- 관련 기반구축, 기업지원, R&D 에타 추진 등 전방위적 지원책 추진 속도 -

경상북도가 글로벌 공급과잉,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대내외적 요인들로 성장한계에 직면한 철강산업 구조고도화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철강산업은 작년 일본 수출규제, 최근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중소기업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제조업 전반의 경기 침체 가속화에 따라 불황의 끝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경상북도는 2017년부터 총사업비 204억원(국비 100, 지방비 104)을 투입, 포항블루벨리 국가산업단지에 구축하고 있는 「고품질 강관 시험인증센터」 준공(' 20.5월)과 함께 시험장비 가동을 본격화하여 관련 기업들의 품질인증, R&D과제 발굴 등을 본격 지원할 예정이다.

또 동해안 철강벨트 경쟁력 강화사업(6년간 40억원), 전략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6년간 78억원) 등 중소기업 애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업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관련사업 추진에 있어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을 집중 발굴해 업체가 필요로 하는 R&D 사업화 지원, 컨설팅을 통한 구조고도화를 중점 추진해 나감으로써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이번 어려움을 계기로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을 놓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경북도는 '19년 4분기 과기부 기술성 평가 통과 후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본예타 조사가 진행중인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 (이하 철강예타)이 최근 과기부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 를 통해 소재·부품·장비 관련 R&D 사업으로 연관성을 인정받는 등 예타 조사를 최종 통과하여 사업화될 수 있도록 지속 대응 중이다.

해당 사업이 추진되면 고부가 R&D, 실증지원 및 성과확산 등 업계 지원 수요가 높은 분야들을 중심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2,898억원(국비 2,027, 지방비 124, 민자 747)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장상길 경북도 과학산업국장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지역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추진중인 각종 지원방안들이 적절한 마중물이 되어 철강산업을 비롯한 제조업 전반의 침체된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며

“특히, 철강예타 사업의 경우 아직 본예타 통과라는 큰 관문이 남아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지금까지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도록 예타통과의 그 순간까지 각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 을 당부했다.

 <b>경상북도</b>	<b>보도자료</b> <b>【20. 4. 20(월)】</b>	담당부서	환경산림자원국 환경정책과				
		작성 자	과 장	김 종 현			
			팀 장	이정호	주무관	서승호	
		연 락 처	054-880-3529				

## 4월22일 ‘지구의 날’ ... 10분간만 소등해 주세요!

- 경북도, 지구의 날(4.22.)을 맞아 공공건물 등 10분간(20:00~20:10) 소등 당부 -
- 기후변화 심각성 인식 및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확대 계기 마련 -

경상북도는 제12회 기후변화주간(4.22.~4.28.) 및 지구의 날(4.22.)을 맞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소등행사를 추진한다.

지구의 날이란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해상기름 유출 사고를 계기로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1970년 4월 22일 시작된 민간주도의 세계 기념일이다.

매년 지구의 날을 전후한 일주일을 기후변화주간으로 정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생활 실천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여러 행사를 추진한다.

※ 2020년 슬로건 : ‘SOS 기후행동! 나의 지구를 구해줘!’

이번 소등행사는 도 본청 및 시·군 공공청사를 중심으로 4월22일 오후 8시부터 8시 10분까지 10분간 소등하고, 동시에 개인 가정에도 소등에 동참할 것을 홍보함으로써 전기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고, 에너지절약을 통한 저탄소 생활실천 분위기를 확산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소등행사 외에도 기후변화주간에 시·군별로 공공기관 1일 차 없이 출근하기, 자전거 타고 출근, 온실가스 줄이기, 자동차 미세먼지 저감 캠페인, 탄소포인트 가입 홍보부스 운영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대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하여 도민들에게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유도하여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에 동참하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b>보도자료</b> <b>【20. 4. 20(월)】</b>	담당부서	건설도시국 도시계획과			
		작성자	과장	김준호		
			팀장	도영호	주무관	정성길
		연락처	054-880-3918			

## 경북도, 군위 군관리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등 4건 조건부가결

- 17일 제3회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

경상북도는 지난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군위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등 4건\*을 심의하여 모두 조건부가결 의결했다.

\* 심의결과 : ①군위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조건부, ②안동 태화지구 도시개발사업→조건부, ③안동 송하지구 도시개발사업→조건부, ④구미 원호지구 도시개발사업→조건부

먼저 「군위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건은 군위군 관내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A=285,833㎡)과 팔공산 도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된 자연환경보전지역(A=39,058㎡)에 대하여 주변 현황 분석을 통해 관리지역 용도 변경하는 것이다.

해제된 토지에 대해 주변 토지이용현황 실태 및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인접한 용도지역에 맞게 변경 세분 후, 농지·산지·환경·재해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상정한 건으로, 위원회 심의에서는 일부 토지에 대하여 조정 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가결했다.

「안동 태화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은 안동시 옥동·태화동 일원의 입지 특성상 개발압력이 높은 미개발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조합구성)들이 추진하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A=104,680㎡) 사업이다.

지난 1월(제1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보완 제시된, 인근에 주변사업을 포함하여 기반시설 수용능력 및 주택수요 등을 검토 분석과 공원 및 주차장 추가 확보 등에 대해 전반적인 개발계획 추가 보완 및 대안 제시가 이루어져 이번에 재심의하게 됐다.

논의 끝에 구역 내 주차장계획을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최종 조건부 가결 함으로써 옥동·태화 지역에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배후 주거단지 조성 등 새로운 택지개발사업 추진이 탄력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으로 「안동 송하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은 안동시 노하동 일원에 계획적·체계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토지소유자(조합구성)들이 추진하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A=179,704㎡) 사업이다.

태화지구와 마찬가지로 지난 1월(1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수요 제시 및 주차장 추가 확보 등의 사유로 재심의 되었으나, 금회 보완 후 재상정되어 위원회에서 논의 끝에 쾌적한 주민생활을 위하여 가능한 범위 내 녹지축 및 보행자도로 등을 추가 확보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가결 결정했다.

마지막으로, 「구미 원호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건은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일원에 기 결정(2014년)된 ‘지구단위계획 수립’ 내 미개발 주거용지부지에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A=240,610㎡)이다.

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준주거용지 일부 축소 및 주차장부지 추가 확보 등 보완하는 것으로 조건부 가결 의결했다. 주변 지역은 이미 택지개발 중이거나 개발이 완료되어 상대적으로 개발압력이 높고 주거시설 및 도로, 공원 등 열악한 기반시설이 체계적으로 확충이 되면, 현재 조성 중에 있는 구미국가산업 5단지의 입주업체 공단근로자 및 시민들의 신규 주거배후지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개별법에서 해제된 농업진흥지역 등은 도민들의 민원과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변 여건에 맞게 적합한 용도지역으로 변경을 추진하겠으며, 신규 도시개발사업 또한 장래 주거수요와 기반시설 확충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경상북도</b>	<b>보도자료</b> <b>【20. 4. 20(월)】</b>	담당부서	농축산유통국 축산정책과			
		작성 자	과 장	이 희 주		
			팀 장	김철순	주무관	박상익
연 락 처	054-880-3425					

## 경북도, 말(馬)산업 육성에 날개 달다!!

- 경상북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공포 -
- 말(馬)산업 체계적 육성과 안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

경북도는 13일 「경상북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와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을 공포했다.

이번에 공포된 조례와 「경상북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0. 1. 9. 공포)」, 「경북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 20. 3. 9. 수립)」을 연계 추진함으로써 경북도는 말산업 육성에 획기적인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북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영천경마공원 개장 시(’ 23년 하반기) 징수되는 레저세 중 일부를 말산업 육성과 교육 등에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다.

또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은 영천경마공원에 부과되는 세액을 개정하는 것으로, 경북도와 영천시의 숙원사업인 영천경마공원 건설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이다. 현재 영천경마공원은 2023년 하반기 개장을 목표로 각종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중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그동안 농촌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인 말산업 육성에 노력해왔지만 제도적인 기반이 다소 미흡했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말산업이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말(馬)산업 육성 관련 지원근거(조례) 마련

◇ 말(馬)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안정적 지원 위한 근거 마련  
『도의회 농수산위 이춘우 부위원장 의원발의(2건)』

## 1 발의조례

- 경상북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

## 2 제정사유

- 말산업을 향후 농촌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 3 추진일정

- '20. 2. 24. : 이춘우 부위원장 의원발의(입법예고)
- '20. 3. 26. : 농수산위 조례안 심의
- '20. 3. 30. : 도의회 본회의 의결
- '20. 4. 13. : 조례 공포

## 4 주요내용

구분	말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기금의 조성(안 제5조) 영천경마공원 개장시 징수 <u>레저세 중 5% 이내</u></li><li>○ 기금의 용도(안 제6조) <u>말산업 육성 위한 사업, 교육 등</u></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경마장에 대한 세액경감(안 제6조의 2) 영천경마공원에서 산출된 <u>레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22. 12. 31.)</u></li></ul>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재정법, 말산업육성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특례제한법

## 5 향후계획

- 『말산업육성 5개년 종합계획』 과 연계 추진
- 관계기관(마사회, 협회 등)과 협력, 말산업 육성

# 「경상북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 목 적 (공포 : '20. 4. 13.)

- 경상북도의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말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경상북도 말산업육성기금의 설치·운용을 규정

## □ 주요 내용

- 제1조 및 제2조에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
- 제3조 및 제4조에 말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을 규정
- 제5조 및 제6조에 기금 구성과 기금 용도를 규정
- 제7조에 기금의 관리·운용과 여유자금의 관리 방법 등을 규정
- 제8조 및 제9조에 말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규정
- 12조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기금운용관, 기금분임운용관, 기금출납원 등을 규정

 <b>경상북도</b>	<b>보도자료</b> <b>【20. 4. 20(월)】</b>	담당부서	재난안전실 사회재난과			
		작성 자	과 장	강진태		
			팀 장	박선규	주무관	박정식
		연락처	054-880-2343			

## 경북도, 생활안전 지킴이... 민생경찰 서포터즈 위촉

- 제3기 경상북도 민생경찰 서포터즈 선정 -

- 5대 분야 50개팀 100명 사명감과 책임감 강한 도민으로 구성 -

경상북도는 20일 ‘제3기 경상북도 민생경찰 서포터즈’ 100명을 새롭게 위촉했다.

민생경찰 서포터즈는 우리 도에서 전국 최초로 운영한 제도로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사명감과 책임감이 투철한 도민 100명, 50개 팀으로 구성되었으며, 민생 5대 분야에 대하여 위법행위를 감시하고 제보하는 역할을 한다.

※ 5대 분야 : 식품, 공중위생,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청소년 보호, 환경

주요 임무는 일상생활 중 민생 5대 분야에 대한 예방활동, 시군별 해당지역 합동단속 참여 및 위법행위 발견 시 신고 등 범질서가 생활 속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앞장설 예정이다.

당초 4월 중순에 예정됐던 위촉식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하반기로 연기했다.

앞으로 민생경찰 서포터즈는 2년 동안 활동하게 되며, 간담회를 거쳐 활동사례를 공유하고 제보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도지사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목 경북도 재난안전실장은 “행정력이 미치지 어려운 외곽지역까지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도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b>보도자료</b> <b>【20. 4. 20(월)】</b>	담당부서	소방본부 구조구급과			
		작성 자	과 장	백 승 욱		
			팀 장	김인식	주무관	박상규
		연 락 처	054-880-6332			

## 조심 또 조심! 경북도 봄 영농철 농기계 안전사고 주의 당부

- 작년 한 해 847명 농기계 사고로 다쳐, 4월 ~ 6월 36.7% 차지 -
- 70대 사망사고 가장 많아, 농촌 고령화로 조작 미숙, 부주의가 요인 -

경상북도는 영농철 농기계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농업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북소방본부는 빅 데이터를 활용한 지난해 이송환자 통계분석 결과 농기계 안전사고가 847명 발생했으며, 시기적으로 농사가 시작되는 4월 ~ 6월에 311명으로 36.7%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농기계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54명 발생했으며, 기종별로는 경운기 46명(85.2%), 트랙터 5명(9.2%), 농약살포기 2명(3.7%), 기타 1명(1.9%) 순으로, 2018년 51명 보다 3명이나 증가했다.

지역별 사망자 통계는 김천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청도 6명, 경주·영천·의성 각 5명 순으로 발생했다.

사망자 연령대는 70대 23명(42.6%), 80대 12명(22.2%), 60대 11명(20.4%)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농촌지역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 4월 14일 오후 성주군 ○○면에서는 경운기 운전하던 중 부주의로 낙상하여 경운기에 허벅지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여 병원에 이송됐으며, 4월 8일 오후 의성군 ○○읍에서는 경운기가 전복되면서 밑에 깔려 사망하기도 했다.

올해 들어 4월까지 150명이 농기계 안전사고로 부상을 입었으며 이중

1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될 경우 사고는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농기계 안전사고가 집중되는 이유는, 영농철 농기계 사용 증가와 작업자 고령화로 인한 기계조작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북도는 농기계 사용 행동요령을 널리 홍보하고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농기계를 사용할 때는 ▲작업 전·후 농기계 안전점검 ▲작업에 적합한 복장과 보호 장구 착용 ▲작업 간 적절한 휴식 ▲농기계 음주운전 엄금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신호 준수 ▲농기계 등화장치(반사판) 작동 ▲농기계 동승 금지 ▲논·밭 출입 시 주변 안전 확보 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남화영 경북소방본부장은 “농기계 사고는 대부분 운전자의 부주의, 안전수칙 미 준수 등 인적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만큼 사고예방을 위해 운전자 스스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농기계 조작 전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 고 당부했다.

**참고자료****최근 3년간 농기계 안전사고 현황**

□ **총 출동건수 : 2,484건 (3년간)**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2,484	67	70	200	246	347	268	231	211	240	283	236	85
2019	847	36	27	77	90	124	97	58	57	49	99	98	35
2018	799	14	17	54	73	99	80	113	78	89	86	66	30
2017	838	17	26	69	83	124	91	60	76	102	98	72	20

▶ '19년 4월 ~ 6월 활동실적 311건(36.7%)